영국 안전보건청(HSE), 2011/2012년 건설업 사업계획 발표

– 영국

영국 안전보건청은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2011/2012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, 앞으로 집중하게 될 중점분야 및 사업을 제시함.

영국 건설업 개요

– 건설업은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 중 하나이며 산재의 위험도 비교적 높은 업종임.

▶ 약 200만명의 영국인이 건설업에 종사함.

– 2009/2010년 영국 산재통계

▶ 사망자 42명(잠정), 중상자 3120명, 근로손실일 260만일

2011/2012년 건설업 사업계획

– 건설업의 안전보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을 바탕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 성과를 이루고자 함.

– 중점 분야(operational activities)

▶ 석면(석면해체 · 제거작업에 대한 허가 등)
▶ 소규모 건설현장
▶ 재건축 · 리모델링 현장
▶ 대형 시공사 및 건설현장

– 사업장 방문시 중점 점검사항

▶ 고소작업
▶ 석면에 대한 위험성
▶ 복지시설의 제공여부
▶ 작업장 정리정돈
▶ 호흡기질환에 대한 위험성

– 기타 중점사항

▶ 보건위험요인 관리 : 건설업의 보건위험요인에 대한 의식을 높여 보건관리를 개선하고 직업병예방에 기여함
▶ 지도력 : 선진 안전보건관리기법을 파악.
▶ 가설공사 안전 : 가설공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충분한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함.
▶ 근로자 참여 도모 : 사업장 유해요소를 찾아내고 통제하는 활동에 근로자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함.
▶ 이동식 작업승강대(MEWPs) :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중인 이동식 작업승강대가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점검.
▶ 신규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: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검토. 소규모 사업장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기술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관리함.
▶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임시 시설물을 설치 · 철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안전관리기준을 검토함.

– 협력활동

▶ 소형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"Working Well Together (WWT) Campaign" 지원
▶ 쌍방향의 웹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▶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과 안전보건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의 질을 개선함.